

‘遜順埋兒’條에 나타난 犧牲孝 화소의 불교적 포섭과 그 의미

A Study on the Buddhistic Acceptance of Sacrificial Filial Piety and its Meaning in Sonsun-Maea

저자 (Authors)	신호림 Shin, Ho-rim
출처 (Source)	우리문학연구 45 , 2015.1, 65-87 (23 pages)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45 , 2015.1, 65-87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문학회 The Studies Of Korean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105630
APA Style	신호림 (2015). ‘遜順埋兒’條에 나타난 犧牲孝 화소의 불교적 포섭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 45, 65-8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2 11: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遜順埋兒’條에 나타난 犧牲孝 화소의 불교적 포섭과 그 의미*

신호림**

목 차

- | | |
|-----------------------|-----------------------|
| I. 서론 | IV. 巫佛習俗과 ‘遜順埋兒’條의 의미 |
| II. 犧牲祭儀의 전통과 ‘遜順埋兒’條 | V. 결론 |
| III. 犧牲孝 화소의 불교적 포섭 | |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효선(孝善)」편에 수록된 ‘손순매아(遜順埋兒)’조(이하 <손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매아(埋兒)’라는 희생효(犧牲孝) 화소가 불교적 맥락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구명하고자 했다.

손순의 매아 행위는 신을 감동시키는 장치로 나타나며, 이때 희생되는 아이는 희생제의의 전통에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제물로서 기능한다. 서사의 표면에는 매아 행위가 노모(老母)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순>은 일차적으로 효행담으로 인식되지만, 그 이면에는 신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제의적 관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불교 전래 이전의 종교를 포괄적으로 ‘무속’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 희생제의와 같은 무속적 사유를 효행담이 내면화함으로써 자식 살해로 표상되는 희생효 화소가 서사 내로 견인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노모 봉양이라는 가족 공동체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손순>은 더 나아가 제물로 기능하는 아이를 ‘석종(石鐘)’이라는 이적(異蹟)으로 대체한다. 석종의 출몰로 <손순>은 『삼국유사』 「홍법」 편 ‘원종홍법 염축멸신(原宗興法 厭觸滅身)’조에서 나타난 ‘희생 → 종소리 → 불교적 승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과정 수료

화’의 구도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서사적 전환을 꾀한다. 더욱이, 서사의 후반부에서 아이를 대체한 석종을 홍효사(弘孝寺)에 안치시킴으로써 제의적 죽음은 불교적 희생으로 의미를 구체화해 나간다.

그런데 〈손순〉이 내면화하고 있는 무속적 전통은 〈손순〉을 단순히 불교적 선과 윤리적 효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텍스트로 한정시키지 않는다. 〈손순〉은 이제 효행을 매개로 무속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텍스트로 새롭게 상정된다. 효행담이라는 틀 안에서 무속적 전통이 불교적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불습합의 양상은 희생제의와 같은 무속적 사유가 지향하는 화해와 통합의 힘을 불교가 전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속적 사유는 종교적으로는 신과의 소통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손순〉의 경우 희생을 담보로 한 효행담에서 그 죽음을 불교적으로 승화시키기 때문에 윤리적 질타에서도 벗어나 있는 이점을 확보한다.

결국, 효행담을 매개로 희생제의적 전통을 불교가 내면화함으로써 〈손순〉은 사회적 혼란으로 점철되었던 9세기 신라 하대에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화합시키는 불교적 효행서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희생제의, 희생효, 불교, 삼국유사, 효선, 손순매아, 무불습합, 자식살해

I. 서론

본고는 『삼국유사(三國遺事)』 「효선(孝善)」 편에 수록된 ‘손순매아(遜順埋兒)’조(이하 〈손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매아(埋兒)로 대표되는 희생효(犧牲孝) 화소가 불교적 맥락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구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효를 성취하기 위한 손순의 매아 행위는 ‘직계 존속’을 살리기 위해 ‘직계 비속’을 살해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으로 읽히며,¹⁾ “엽기적인 행위”²⁾ 또는 “해괴망측한 효”³⁾로 평가받기도 했다. 자식을 향한 본능

적 사랑을 부정하면서까지 이념적인 효를 발휘했기 때문에 <손순>이 지속적으로 효의 문맥에서 읽히게 되지만,⁴⁾ “불가사의의 가능”에 기초한 효의 완성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불가사의가 그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⁵⁾ 즉, 매아 행위가 『삼국유사』 텍스트 안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계기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삼국유사』 「효선」편을 ‘당대 유학자들이 가한 불교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본 시각⁶⁾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
- 1) 최진형, 「구전설화에 나타난 ‘파격’: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83면.
 - 2) 김덕균, 「삼국유사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효학연구』 제3집, 한국효학회, 2006, 86면.
 - 3) 조수학, 「효의 변천과 참 뜻」, 『한국한문학과 불교문화』, 아세아문화사, 1981, 679~689면.
 - 4)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I -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제93집, 국어국문학학회, 1985, 143면.
 - 5) 이상일, 「효행유리의 변이 연구 - 설화의 역사화과정을 중심으로 -」, 『인문과학』 제3집 1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3, 212~213면.
 - 6) 유학자들에 의한 불교 비판이 일어난 시기를 통일신라로 잡느냐(이기백, 김두진, 김덕균, 김수태, 김복순), 고려로 잡느냐(민병하, 조미연, 조범환, 장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불효’를 중심으로 불교에 가해진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효선」편을 이해하는 시각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김영하는 유불의 대립적 구도는 지나치다고 하면서, 상보적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기백,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 - 『삼국유사』 효선편을 중심으로 -」, 『동아연구』 제2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3, 37~38면; 김두진,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효선쌍미’ 신앙」, 『한국학논총』 제15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7면; 김덕균, 위의 논문, 2006, 83면;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 사지’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108면;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 인식」,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53면; 민병하, 「삼국유사에 나타난 효선사상」, 『인문과학』 제3집 1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3, 235~236면; 조범환, 「『삼국유사』 ‘빈녀양모’조에 나타난 지은의 효성」, 『신라문화제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159면; 장정태, 「『삼국유사』 「효선」 편 연구」,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19집,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2, 134면; 김영하, 「『삼국유사』 효선편의 이해」,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28면.

불교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판의 목소리는 ‘불효(不孝)’와 관련된 것이었고,⁷⁾ 이에 대한 불교의 대응으로 효를 강조한 다수의 불경을 내세우거나 효를 주제로 한 위서[僞經]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특히, 불교의 효는 다양한 존재 형태의 모든 조상을 포함하는 ‘보편적 구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유교의 효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되기도 했다.⁸⁾ 불교의 효가 가지는 우월성은 대효(大孝)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어, 정법(正法)을 획득하기 위한 선(善)과 부모를 봉양하는 효 개념이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낳게 되었다. 실제로 <손순>과 함께 「효선」편에 수록된 ‘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조(이하 <진정>)와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조(이하 <대성>)에서는 출가, 보시, 윤회 등을 매개로 대효를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며,⁹⁾ ‘효선쌍미(孝善雙美)’ 사상¹⁰⁾으로 정리되기도 했다.

그러나 세속적 효와 불교적 신앙 사이의 갈등을 신앙의 입장에서 해결¹¹⁾

7) 신규탁은 중국 불교가 받은 비판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신규탁, 「중국 불교의 효사상 형성」, 『동양고전연구』 제8집, 동양고전학회, 1997, 338~342면.

- ① 불교는 오랑캐의 가르침이다.
- ② 머리를 깎는 삭발 행위는 불효이다.
- ③ 후사를 끊는 것은 불효이다.
- ④ 부모를 버리고 봉양하지 않는 것은 불효이다.
- ⑤ 임금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불효이다.

8) K.S. 케네스 첸, 장은화 역, 『중국인의 삶과 불교의 변용』, 씨아이알, 2012, 17~18면.

9) 김희진, 「한국고대의 효사상 연구: <삼국사기>, <삼국유사>, <금석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34면; 조미연, 「『삼국유사』 「효선」편 연구」, 『한문학논집』 제17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207면; 김덕균, 앞의 논문, 2006, 83면; 정천구, 「『삼국유사』와 『사석집』의 효에 대한 인식 비교」, 『영남학』 제14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359~360면; 김복순, 앞의 논문, 2009, 44면; 남동신, 「대성효이세부모조에 보이는 효와 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77면; 이혜경, 「효문화의 생산과 『삼국유사』에서의 표현」,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18집,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011, 87~88면; 임동주, 「신라불교 윤리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47~149면.

10) ‘효선쌍미’ 사상에 대해서는 김두진, 앞의 논문, 1993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11) 이기백, 앞의 논문, 1983, 35면.

한 <진정>과 <대성>과는 달리, <손순>, ‘향득사지할고공친(向得舍知割股供親)’조(이하 <향득>) 그리고 ‘빈녀양모(貧女養母)’조(이하 <빈녀>)에서는 신체훼손을 수반하는 매아, 할고(割股), 매신(賣身) 화소를 통해 효를 성취한다. 물론, <향득>의 할고 화소와 <빈녀>의 매신 화소는 불교적 사신시(捨身施)와 닮아있어 이를 불교적 희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¹²⁾ 그 행위가 부모를 위한 정성으로 읽힐 때 불교적 ‘선’이 ‘효’라는 가치체계와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 다만, 아이의 희생을 담보로 효를 성취하는 <손순>의 서사에서 과연 불교적 효행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¹³⁾ 즉, 효가 없다는 유학자들의 비판에 대한 불교적 대응으로 <손순>에 접근했을 때, ‘매아’라는 희생효 화소에 대한 해명이 부재하고 있는 것이다.

희생효 화소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고대의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세의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¹⁴⁾ 종교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살해되는 아이가 희생제의에서 신에

12) 향득의 할고행위를 사신시로 해석한 연구자로는 최정선, 김수태, 임동주, 조미연이 있으며, 빈녀의 매신행위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매신을 불교적 사신시의 하나로 바라볼 수 있는 일례를 「홍법」편 ‘원종홍법 염축멸신(原宗興法 厭蠲滅身)’조를 통해 보인 신종원의 견해를 참고해볼 수 있다. 최정선,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제10집, 불교학연구회, 2005, 158면; 김수태, 앞의 논문, 2009, 113~114면; 임동주, 앞의 논문, 2012, 150면; 조미연, 앞의 논문, 2000, 219면; 엄선용, 『삼국유사』 「효선」편 분석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21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475면; 신종원, 「삼국유사 원종홍법 염축멸신조 역주」, 『겨레문화』 제10집, 한국겨레문화연구원, 1996, 10면.

13) 조미연은 손순의 매아 행위도 불교적 사신시라고 보았고 엄선용도 그 견해를 그대로 따랐지만(조미연, 위의 논문, 2000, 218면; 엄선용, 위의 논문, 2008, 475면), 할고와 매신과는 달리 매아 행위가 불교적 사신시로 나타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교적 선을 추구하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蜜) 중 하나인 사신시가 분명 신체훼손에 대한 불교적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그 희생의 방향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자식과 같은 타인을 향하지는 않는다. 즉, 손순의 매아 행위는 그 자체로 불교적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

14)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제10집, 실천민속학회, 2007a, 196면.

게 바쳐지는 제물로서 기능했지만, 윤리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신’이라는 존재가 ‘부모’라는 존재로 대체되면서 그 제의적 죽음이 희생효 화소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손순>이 ‘아이의 제의적 죽음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위기상황을 극복해내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부부가 품을 팔아 겨우 봉양하는 노모(老母), 그리고 그 노모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하나뿐인 아이. 아이를 땅에 묻는 이유는 “아이는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다”¹⁵⁾고 하는 손순의 발화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희생제의의 전통이 효행담에 미친 영향력이 내재되어 있다.

필자 또한 매야 화소에 대한 해석에 있어 희생제의의 전통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손순>에서 나타나는 희생제의의 전통을 신라 당대의 문화사회적 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과 효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효선」편¹⁶⁾에 수용될 수 있었던 불교적 맥락을 <손순>이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제의의 전통을 담고 있는 윤리적 서사가 다시 종교적 서사로 편입되는 복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효’를 매개로 신라 후대에 불교와 불교 이전 시기의 토착종교가 습합되는 일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15) 孫順者(古本作孫舜), 牟梁里人, 父鶴山. 父沒, 與妻同傭作人家得米穀, 養考孃, 孃名運烏. 順有小兒, 每奪孃食, 順難之, 謂其妻曰, “兒可得, 母難再求. 而奪其食, 母飢何甚 且埋此兒.” 『삼국유사』 「효선」편 ‘손순매야’조. 일연, 강인구 외 역, 『(역주) 삼국유사』 IV, 이회문화사, 2002, 385면. 이하 인용되는 『삼국유사』 텍스트는 일연, 강인구 외 역, 『(역주)삼국유사』 I~IV, 이회문화사, 2002에서 참고했으며, 본고에서는 원문만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16) ‘효선(孝善)’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기백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孝善이 家庭에서의 父母에 대한 孝와 信仰에서의 佛에 대한 善과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 편은 곧 이양자의 관계에 대한 편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다. 즉 이 편은 世俗的인 倫理와 宗教的인 信仰과의 관계, 양자의 충돌 혹은 조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기백, 앞의 논문, 1983, 31면.

II. 犧牲祭儀의 전통과 ‘遜順埋兒’條

『삼국유사』를 포함한 신라시기에 대한 기록에서 <손순>과 같은 자식살해 화소는 찾아보기 힘들다. 『삼국유사』 「의해(義解)」편 ‘원광서학(圓光西學)’ 조에서 유복한 사람의 무덤에 아이를 묻으면 자손이 끊이지 않는다는 속설¹⁷⁾을 발견할 수 있지만, 원광의 무덤에 묻히는 아이는 태사(胎死)한 상태로, 부모를 위해 살아 있는 아이를 매장하는 손순의 행위와 거리가 있다. 금석문 소재 설화인 <영암사적연국사비(靈巖寺寂然國師碑)>에서도 매아 화소가 등장한다고 알려졌지만,¹⁸⁾ 이는 매아라기보다는 영웅소설 등에서 보이는 기아(棄兒) 화소라고 보아야 한다. 즉, 신라시기에 대한 기록에서는 제의적 죽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희생제물로서의 아이의 모습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삼국유사』 「기이(紀異)」편 ‘태종춘추공(太宗春秋公)’ 조에서 볼 수 있듯이 흰 말과 같은 동물 희생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¹⁹⁾

하지만 2000년에 국립경주박물관 경내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우물이 발견되었고, 출토품 중 하나로 7~8세 유아의 인골(人骨)이 나오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우물 주변에서 일종의 희생제의가 일어났다는 점은 인골과 함께 출토된 2,100여 개의 동물 뼈와 다양한 종류의 토기, 복숭아 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입증되었고,²⁰⁾ 어린 아이 또한 이 제사에서 제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물론, 그 제의의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아이가 희생제의의 제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뿐

17) 後有俗人兒胎死者，彼土諺云，當於有福人墓埋之，種胤不絕.

18) 김승호, 「중세 금석문소재 불교설화의 통시적 연구」(과제번호: KRF-2009-327-A004-08), 한국연구재단, 2012, 22~23면.

19) 新羅別記云，文虎王即位五年乙丑秋八月庚子，王親統大兵，幸熊津城，會假王扶餘隆作壇，刑白馬而盟，先祀天神及山川之靈，然後歃血.

20) 이현태, 「신라 ‘남궁(南宮)’의 성격 - ‘남궁지인(南宮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제81집, 한국역사연구회, 2011, 142~150면.

아니라, 사고사를 당한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동물과 토기 등을 아이의 시체와 함께 우물 안에 묻었을 가능성도 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우물 외 몇몇 다른 지역의 우물에서도 제의의 흔적과 함께 출토품으로 목제 인형(人形)이나 사람 얼굴이 그려진 토기 등이 나왔다는 점, 인형과 토기들이 인간을 대신한 대체희생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²²⁾ 통일신라 이전부터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로서 어린 아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관념이 이어져 왔음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런 관념과 유사하게 <손순>에서도 아이를 묻는 행위가 곧 하늘로 표상되는 신(神)을 감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이의 희생은 노모의 봉양을 위한 것이라고 나타나지만, 매아 행위 자체는 신을 감동시키는 장치로, 제물을 매개로 신과 소통하는 희생제의의 기본 원리를 공유한다.²³⁾ 따라서 <손순>에서는 곽거(郭巨)의 사례가 함께 거론되면서, 매아 행위가 천지(天地)를 감동시켜 황금으로 된 솥[金釜]과 석종(石鐘)을 얻게 되었다고 표현되는 것이다.²⁴⁾ 이익(李瀾)은 『해동악부(海東樂府)』 소재 <모량종(牟梁鍾)>에서 이런 정황을 더 명확하게 운문으로 적어놓고 있다.

21) 김재현, 「연결통로부지내 우물 출토 인골에 대한 소견」, 『국립경주박물관부지내 발굴조사보고서 - 미술관 부지 및 연결통로부지 -』, 국립경주박물관, 2002, 472~473면; 국립경주박물관 편,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 국립경주박물관, 2011, 123면.

22) 이에 대해서는 이재환,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木簡과 文字』 제7집, 2011, 87~97면을 참고했다.

23) 이와 관련해서 위베르(Henri Hubert)와 모스(Marcel Mauss)는 인간과 신 사이에 계약적 요소가 없는 희생제의를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acrifice shows itself in a dual light; it is a useful act and it is an obligation. Disinterestedness is mingled with self-interest. That is why it has so frequently been conceived of as a form of contract. Fundamentally there is perhaps no sacrifice that has not some contractual element.” Henri Hubert and Marcel Mauss, *Sacrifice-Its Nature and Functions*-(Translated by W.D.Hal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p.100.

24) 王曰, “昔郭巨瘞子, 天賜金釜, 今孫順埋兒, 地湧石鐘, 前孝後孝, 覆載同鑑”.

人之有誠兮	사람이 정성을 쏟으면
必感於鬼神	반드시 귀신도 감동시키네
鬼神不言兮	귀신은 말이 없으니
借物爲口舌	물건을 빌어 입을 대신하네
牟梁人兮篤行事	모량인의 독실한 행실에
恍惚其洪鍾出	홀연히 홍종을 내어놓았네
土中深藏兮鳧氏器	흙 속 깊숙이 묻혀 있던 부씨의 기물
山靈衛持兮待時發	산령이 지키다 때를 기다려 내놓았네 ²⁵⁾ (……)

〈모량중〉에서는 모량인[孫順]의 독실한 행위[埋兒]가 귀신[山靈]도 감동시키는 정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며, 귀신은 말 대신 ‘중’이라는 물건으로 답을 내놓는다. 아이를 제물로 바치면서 ‘인간-신’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손순〉의 표면에는 매아가 노모를 위한 행위라고 나와 있어 ‘효’라는 가치체계가 희생제의와 맺고 있는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즉, 〈손순〉에 나타나는 매아 행위는 ‘인간-신’ 사이를 매개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부모를 향한 자식의 효행으로 표현됨으로써, 효행담이라는 윤리적 텍스트 이면에 제의적 관념이 녹아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순〉에서 나타나는 “유아 살해는 제의의 범주”²⁶⁾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엽기적인 행위”를 통한 “해괴망측한 효”의 성취와는 차별적인 서사라고 할 수 있다.

25) 원문은 이익, 이민홍 역, 『해동악부』, 문자향, 2008, 126면을 참고했다.

26)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개정판), 민음사, 2000, 22면.

Ⅲ. 犠牲孝 화소의 불교적 포섭

〈손순〉에 나타난 매아 행위는 희생제의의 전통을 효행담이 내면화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아이를 묻으려다가 석종을 얻는 장면은 오히려 제의적 전통과 거리감을 형성한다. 물론, 아이의 죽음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²⁷⁾ 그 죽음을 대체하는 ‘석종(石鐘)’이라는 이적(異蹟)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지라르(René Girard)에 따르면, 제의적 희생은 ‘두 가지 대체’에 의해 작동되는데, 첫 번째 대체는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그 원인을 단 한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다.²⁸⁾ 〈손순〉의 경우, 노모 봉양의 문제가 가족 공동체의 위기를 표상하며, 그 위기의 원인이 노모의 양식을 빼앗아 먹는 아이[順有小兒, 每奪孀食]에게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희생양으로 아이가 지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²⁹⁾

두 번째 대체는 본래 희생제의의 제물로 지목된 존재를 ‘희생시킬 만한 범주에 속하는 제물’로 다시 바꾸는 것이다.³⁰⁾ 희생시킬 만한 제물은 본래 희생양으로 지목되었던 존재와의 유사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며, 그 가운데

27) 아이의 죽음 여부와 관계없이, 매아 행위 자체는 자식 살해로 이해해야 한다. 심우장, 「설화 속 ‘종소리’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손순매아〉, 〈에미레중〉, 〈까치의 보은〉 설화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b, 148면.

28)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 앞의 책, 2000, 155~156면.

29) 노영근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인 지식과 노동력 중 그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는 위기상황에서 전체 집단의 생존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노영근, 「〈손순매아〉 유형의 분포와 해석」, 『온지논총』 제26집, 온지학회, 2010, 136면.

30) 지라르의 언급을 참고해볼 수 있다. “글자 그대로 제의적인 두 번째 대체는 속죄의 제물victime émissaire을 희생될 수 있는 제물victime sacrificable로 바꾸는 대체이다. 희생될 수 있는 제물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보통 그 사회 밖에 떨어져 나가 있다는 것인데, 그 반면에 속죄의 제물은 사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앞의 책, 2000, 406면.)

에서도 둘 간의 구분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³¹⁾ 〈손순〉과 유사하게, 부모를 위해 자식을 살해하는 화소를 지닌 〈동자삼〉 설화에서 이런 두 가지 대체 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동자삼〉에서는 부모득병의 위기 상황에서 어린 아이가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그 이후에 아이 대신 동삼(童參)이 다시 대체 희생물로 등장함으로써, 이종의 희생대체 과정을 충실히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자삼〉은 효행담이면서 동시에 제의적 효력을 유지하는 텍스트로 전승될 수 있었다.³²⁾

그런데 〈손순〉의 경우, 〈동자삼〉과는 달리 살해되는 아이와는 어떤 관련성도 없는 ‘석종(石鐘)’이 출몰하며, 아이 대신 제물로서 희생되지도 않는다. 석종이 〈손순〉에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대상이며, 석종을 통해 〈동자삼〉과는 차별되는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불교적 선과 윤리적 효의 관계를 다루는 『삼국유사』 「효선」 편에 〈손순〉이 수록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아이를 묻으려다가 석종을 얻은 부부는 나무 위에 종을 걸고 시험 삼아 울려보며, 종을 얻은 것이 아이의 복이라 생각해 땅에 묻지 않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다시 종을 울리자 궁궐에 있던 흥덕왕(興德王)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게 된다.³³⁾ 강진옥의 언급과 같이, 종소리의 울림으로 손순 부부의 자각(自覺)이 일어나고, 곧 종교적 차원의 범종(梵鍾) 이미지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또한 종소리를 매개로 공간적 확장을 보이는데, ‘매아 현장에 있던 손순 부부의 내면 변화 → 집으로 돌아온 뒤 이루어

31)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옮김, 앞의 책, 2000, 23~25면.

32) 이에 대해서는 신호림, 「희생대체의 원리와 〈동자삼〉의 제의적 성격」, 『우리문학연구』 제43집, 우리문학회, 2014, 166~172면.

33) 堀地忽得石鐘, 甚奇. 夫婦驚怪, 乍縣林木上, 試擊之, 春容可愛. 妻曰, “得異物, 殆兒之福, 不可埋也.” 父亦以爲然, 乃負兒與鍾而還家, 縣鍾於梁扣之, 聲聞於闕. 興德王聞之.

34) 강진옥, 앞의 논문, 1985, 142~146면.

졌을 마을 단위로 얻어진 깨달음 → 국가적 단위의 변화'가 나타난다.³⁵⁾

그런데 제의적 죽음이 종소리로 이어지는 구도는 『삼국유사』 「흥법(興法)」편 ‘원종흥법 염축멸신(原宗興法 厭觸滅身)’조(이하 〈염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흥륜사(興輪寺) 창건을 두고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차돈(異次頓)의 제의적 희생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염축〉은, 희생양인 이차돈을 매개로 정치적·종교적 화해의 서사로 나아간다.³⁶⁾ 그리고 이차돈의 희생 이후 불교가 확산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종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염축〉 후반부에 붙어 있는 찬시(讚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徇義輕生已足驚	의를 좇아 죽는 일 놀랄 일인데
天花白乳更多情	하늘꽃 흰 젖은 더욱 다정하다
俄然一剎身亡後	칼날이 한 번 번쩍, 몸을 마친 뒤로
院院鍾聲動帝京	절마다 종소리 서울을 흔든다

일연의 찬시가 앞부분에서 제시되는 서사담이나 사건, 이적 등을 보다 객관화시키고 강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견해³⁷⁾를 참고한다면, 〈염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찬시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적 희생을 통한 범(凡) 국가적 깨달음이 종소리[鍾聲]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차돈의 희생이 보살행[大士之行]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손순〉의 종소리가 희생물의 죽음을 승화시킨 결과물이라고 할 때,³⁸⁾ 〈손순〉과 〈염축〉은 ‘희생’을 통한 종소리의 확장을 공유하고 있다. 〈손순〉이

35) 강진옥, 앞의 논문, 1985, 158~159면.

36) 조현설, 「무불의 접화와 화해의 서사」, 『민족문학사연구』 제50집, 민족문학사학회, 2012, 16~18면.

37) 강명혜, 「『삼국유사』의 언술방식」, 『온지논총』 제28집, 온지학회, 2011, 135면.

38) 심우장, 앞의 논문, 2007b, 158면.

두 번째 희생대체의 과정에서 ‘석종’을 등장시킨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식 살해라는 윤리적 질타를 회피하기 위함이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그 희생을 <염축>과 같이 불교적 맥락으로 인식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손순>의 결말부에서 석종을 홍효사(弘孝寺)에 안치시키는 모습³⁹⁾은 그 의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향득>과 <빈녀>의 할고 및 매신과는 달리, <손순>에 나타나는 ‘매아’ 자체는 불교적 희생으로 읽어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순>은 ‘석종’을 살해되는 아이 대신 출몰시킴으로써 이제 매아 화소는 제의적 죽음에서 불교적 희생으로 전환된다. 희생제의를 전통을 내면화한 효행담이 다시금 불교적 맥락으로 포섭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희생의 의미전환을 통해, ‘홍효사’라는 절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효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제의적 힘을 불교 사찰이 전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희생제의를 전통을 내면화한 효행담으로서 <손순>이 「효선」편에 수록될 수 있었던 기반이 된다.

IV. 巫佛習俗과 ‘遜順埋兒’條의 의미

<손순>은 기본적으로 신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희생제의를 내면화한 효행담이라는 점에서, 불교 전래 이전의 무속적 전통⁴⁰⁾을 서사 내에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손순>이 내면화하고 있는 무속적 전통은 <손순>을 단순히 불교적 선과 윤리적 효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텍스트로

39) 順捨舊居爲寺，號弘孝寺，安置石鐘.

40) 본고에서 ‘무속’은 조현설의 논의에서처럼 “무교(Shamanism)를 포함하여 무속과 관련된 제반 문화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즉, 제천의례와 건국신화에서 알 수 있는 천신강림과 산신숭배 신앙, 신인이 서로 교통하고 결합하기도 하는 신인융합의 신앙 등을 공유하는 종교적 기반을 포괄적으로 ‘무속’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조현설, 앞의 논문, 2012, 13면, 각주 1번 참조.

한정시키지 않는다. 더 나아가, 효행을 매개로 무속과 불교의 관계를 따져 볼 수 있는 텍스트로 <손순>을 새롭게 상정시키고 있다.

사실, 『삼국유사』에서는 무불(巫佛)이 습합(習合)되는 과정을 몇몇 작품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염축>을 통해 희생을 매개로 무불이 화해하는 6세기의 양상을, 「감통」편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조와 <대성>을 통해 무속이 불교에 외형적으로 포섭되는 7세기의 양상을 보여준다.⁴¹⁾ 그리고 「감통」편 ‘김현감호(金現感虎)’조에 이르면 무속적 사유가 불교적으로 내면화된 8세기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무속적 사유 내부에 있던 희생을 매개로 한 증여의 전통이 불교 사상 안으로 들어가 보살행이라는 형식으로 승화”⁴²⁾되었다는 논리는 8세기 후반에 이르러 무불이 내면적으로 통합되었음을 시사한다. 외래종교로서 불교가 통일신라시대에 보편종교로 자리 잡기까지 토착종교인 무속과 ‘갈등 → 화해 → 통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불습합 과정의 연장선에 9세기 초반 텍스트인 <손순>이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를 위한 자식 살해라는 이율배반적 선택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손순>은 무속적 희생을 통한 효의 성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체 희생물로 석종이 등장하면서 서사의 전환이 일어나며, 결국 가족 내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뿐 아니라, 홍효사의 창건이라는 불사(佛事)까지 성취한다. 희생제의라는 무속적 전통이 효행담이라는 형식을 매개로 불교적 희생으로 포섭되고 전유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9세기 초에 <손순>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현감호’조에서도 나타났듯이, 8세기 후반부터 보편종교로서의 불교가 무속을 내면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손순>은 신라 하대에 꽤 활발하게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41) 조현설, 앞의 논문, 2012, 18~21면.

42) 조현설, 앞의 논문, 2012, 27면.

다. 「효선」편에 함께 수록된 인물들을 봐도, 향득과 빈녀는 〈향덕(向德)〉과 〈효녀지은(孝女知恩)〉이라는 이름으로 『삼국사기』 「열전」에 전재(前載)될 만큼 신라 시대에 유명한 인물이었다. 진정과 대성도 신라 불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진정은 오진(悟眞), 지통(智通), 표훈(表訓), 진장(眞藏), 도융(道融), 양원(良圓), 상원(相源), 능인(能仁), 의적(義寂)과 함께 의상(義湘) 문하의 십대덕(十大德) 중 한 명이었고,⁴³⁾ 대성은 평민이었지만 재상 김문량(金文亮)의 아들로 환생한 후 장수사(長壽寺), 불국사(佛國寺), 석불사(石佛寺)를 세웠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손순의 이야기가 「효선」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작품들 못지않게 신라 하대부터 〈손순〉이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손순〉의 서두를 봐도 「효선」편 중 〈손순〉만이 유일하게 “고본(古本)”에 수록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⁴⁴⁾ 따라서 〈손순〉이 “과거에 효행사례 가운데 두드러진 유형”⁴⁵⁾이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의 시각은 설득력을 가진다.⁴⁶⁾

〈손순〉의 무불습합적 특징과 그 활발한 전승력은, 신라 하대에 〈손순〉이 효행담 이상의 의미를 확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손순〉의 배경이 되는 흥덕왕 집권 시기(826~836)는 농민층으로 표상되는 하층민들의 사회

43) 『삼국유사』 「의해(義解)」편 ‘의상전교(義湘傳教)’조.

44) 孫順者(古本作孫舜)

45) “『삼국유사』에 올라 있는 다섯 편을 상호 비교할 때 ‘손순’이 가지는 특징은 다른 네 편과는 달리 손순편에서만 ‘다른 기록’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서두에서 “孫順”을 옛 책에는 ‘孫舜’이라 했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손순 매아 유형은 과거에 효행 사례 가운데 두드러진 유형이었고 그래서 古本에까지 올라 있었다가 김부식의 눈에는 너무 끔찍하고 지나친 결심으로 비쳐져 탈락되고 가장 자유로운 서술이 가능했던 『삼국유사』에는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김대숙, 앞의 논문, 1998, 26면.)

46) 물론, 〈손순〉의 전승력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지 주민들의 구전을 통해 〈손순〉 텍스트뿐 아니라 ‘홍효사 절터’, ‘북골’, ‘종동’, ‘순애장골’ 등 〈손순〉과 관련된 지명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임재해,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11집 1호, 신라문화선양회, 1990 참고.

경제적 몰락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흥덕왕 재위 7~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난 기근, 흉년, 도적 봉기, 유행병 등은 당대 사회적 불안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⁴⁷⁾ 특히, 도적 봉기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도 단순한 안무(按撫)에서 공권력을 동원한 토평(討平)으로 변화해서, 신라 하대에 국가의 지배력이 하층민에게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⁴⁸⁾

이런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손순>과 같은 이야기는 효행담 이상의 사회적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손순>이 내면화하고 있는 희생제의의 전통은 종교적으로는 신과의 소통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내부 통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즉, “희생제의가 없애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는 바로 가까운 사이끼리의 분쟁, 경쟁 상태, 질투심과 언쟁이며 다시 세우려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이고, 강화시키려는 것은 사회적 일치”⁴⁹⁾이다.

물론,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희생양에게만 그 원인을 전가하고 제의적으로 살해하는 희생제의의 논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 특히, 그 무속적 사유가 효행담에 내면화되었을 때, 희생양으로 지목된 가족구성원의 죽음은 오히려 가족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손순>은 무속적 사유가 지향하는 사회통합의 힘은 유지시키면서도, 희생을 종소리과 같은 불교적 신이성으로 승화시키는 등 자식 살해에 대한 윤리적 혐의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형성되는 불교의 사회적 자장(磁場)은 국가적 보상이나 표창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사회를 통합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확보한다. 손순의 이야기는 당대 하층민들의 이

47) 흥덕왕 시기 신라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기섭, 「신라 흥덕왕대 손순의 효를 통해 본 ‘표창’의 의미」,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한국중세사학회 편), 정림사, 2001, 404~412면을 참고했다.

48) 구산우, 「신라말 향촌사회의 변동과 새로운 계층구조의 형성」,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한국중세사학회 편), 정림사, 2001, 425면.

49)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 앞의 책, 2000, 19~20면.

야기로,⁵⁰⁾ 지배윤리로서의 효를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 무속적 사유를 내면화한 효행담이기 때문이다.⁵¹⁾

〈손순〉은 무속적 사유를 기반으로 가족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타개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불교가 그 힘을 전유함으로써 효행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경계를 넘어 범국가적 깨달음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시켜 나간다. 〈손순〉에서 나타난 가족 공동체의 위기 상황이 ‘가난’과 ‘빈곤’이었기 때문에, 〈손순〉을 향유한 하층민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그 공감대가 활발한 전승력과 결합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적 효용력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손순〉은 효행담이라는 형식을 매개로 희생제의적 전통을 불교가 전유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으로 점철되었던 9세기 신라 하대에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화합시키는 서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손순〉에 나타난 ‘매야’ 화소가 불교적 맥락으로 수용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구명하고자 했다. ‘효’와 관련해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주목했던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손순〉을 해석하기보다는, 희생효 화소가 서사 안으로 견인될 수 있었던 제의적 배경과 이를 다시 불교적으로 포섭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다. 본론에서 다룬 내용

50) 김영하는 일연이 『삼국유사』 「효선」 편에 ‘평민’에 대한 이야기만을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유사적(遺事的) 성격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영하, 앞의 논문, 2009.

51) 〈손순〉에서도 왕의 포상이 나타나지만[乃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 以尙純孝焉.], 그 보상의 원천은 국가가 아닌 하늘의 감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김대현, 「『수신기』와 『삼국유사』의 효행담에 대한 비교 고찰」, 『아시아문화』 제15집,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225면 참고.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의 표면에는 매아 행위가 노모를 위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손순>은 일차적으로 효행담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매아 행위는 신을 감동시키는 장치로도 나타나며, 서사의 이면에서 ‘자식 살해’가 희생제의의 전통에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제의적 죽음으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과의 소통을 지향하는 제의적 관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희생제의의 전통을 효행담으로 내면화한 텍스트로 <손순>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

<손순>은 더 나아가 제물로 기능하는 아이를 ‘석종(石鐘)’이라는 이적(異蹟)으로 대체한다. 석종의 출몰로 <손순>은 <염축>에서 나타난 ‘희생 → 종소리 → 불교적 승화’의 구도와 그 맥을 같이하면서 서사적 전환을 꾀한다. 서사의 후반부에서 아이를 대체한 석종을 홍효사(弘孝寺)에 안치시키는 장면은 제의적 죽음을 불교적 희생으로 구체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 전래 이전의 종교를 포괄적으로 ‘무속’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면, <손순>은 단순히 불교적 선(善)과 윤리적 효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텍스트가 아니라, 효행을 매개로 무속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텍스트가 된다. 효행담이라는 틀 안에서도 무속적 전통이 불교적으로 통합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불습합의 양상은 희생제의와 같은 무속적 사유가 지향하는 화해와 통합의 힘을 불교가 전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무속적 사유는 종교적으로는 신과의 소통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내부의 통합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손순>의 시대 배경인 9세기 흥덕왕 때에는 가뭄과 기근, 도적떼의 봉기, 유행병 등이 속출하면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첨예화되던 시기였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서 효행담을 매개로 희생제의적 전통을 불교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손순>은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화합시키는 불교적 효행 서사로 당대에 자리매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강인구 외 역, 『(역주)삼국유사』 I~IV, 이회문화사, 2002.

이익, 이민홍 역, 『해동악부』, 문자향, 2008.

2. 논문저서

강명혜, 『『삼국유사』의 언술방식』, 『온지논총』 제28집, 온지학회, 2011.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I - ‘손순매아’의 의미」, 『국어국문학』 제93집, 국어국문학회, 1985.

구산우, 「신라말 향촌사회의 변동과 새로운 계층구조의 형성」,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한국중세사학회 편), 정림사, 2001.

국립경주박물관 편, 『우물에 빠진 통일신라 동물들』, 국립경주박물관, 2011.

김기섭, 「신라 흥덕왕대 손순의 효를 통해 본 ‘표창’의 의미」,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한국중세사학회 편), 정림사, 2001.

김대숙, 「문헌소재 효행설화의 역사적 전개」,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김대현, 「『수신기』와 『삼국유사』의 효행담에 대한 비교 고찰」, 『아시아문화』 제15집,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김덕균, 「삼국유사를 통해본 삼국시대의 효문화」, 『효학연구』 제3집, 한국효학회, 2006.

김두진, 「신라 의상계 화엄종의 ‘효선쌍미’ 신앙」, 『한국학논총』 제15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3.

김복순, 「『삼국유사』 ‘진정사 효선쌍미’조와 일연과 김부식의 효 인식」,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김수태, 「『삼국유사』 ‘향득 사지’조로 본 신라인의 효행」,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김승호, 「중세 금석문소재 불교설화의 통시적 연구」(과제번호: KRF-2009-327-A00408), 한국연구재단, 2012.

김영하, 「『삼국유사』 효선편의 이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김재현, 「연결통로부지내 우물 출토 인골에 대한 소견」, 『국립경주박물관부지내 발굴조사보고서 - 미술관 부지 및 연결통로부지 -』, 국립경주박물관, 2002.

- 김희진, 「한국고대의 효사상 연구: <삼국사기>, <삼국유사>, <금석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남동신, 「대성효이세부모조에 보이는 효와 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 노영근, 「<손순매아> 유형의 분포와 해석」, 『온지논총』 제26집, 온지학회, 2010.
- 민병하, 「삼국유사에 나타난 효선사상」, 『인문과학』 제3집 1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3.
- 신규탁, 「중국 불교의 효사상 형성」, 『동양고전연구』 제8집, 동양고전학회, 1997.
- 신종원, 「삼국유사 원종홍법 염축멸신조 역주」, 『겨레문화』 제10집, 한국겨레문화연구원, 1996.
- 신호림, 「희생대체의 원리와 <동자삼>의 제의적 성격」, 『우리문학연구』 제43집, 우리문학회, 2014.
-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를 전통」, 『실천민속학연구』 제10집, 실천민속학회, 2007a.
- 심우장, 「설화 속 ‘종소리’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 <손순매아>, <에미레종>, <까치의 보은> 설화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6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7b.
- 엄선용, 「『삼국유사』 「효선」편 분석 연구」, 『한자한문교육』 제21집,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8.
- 이기백, 「신라 불교에서의 효관념 - 『삼국유사』 효선편을 중심으로 -」, 『동아연구』 제2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3.
- 이상일, 「효행윤리의 변이 연구 - 설화의 역사화과정을 중심으로 -」, 『인문과학』 제3집 1호,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3.
- 이재환, 「傳仁容寺址 출토 龍王 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 『木簡과 文字』 제7집, 2011.
- 이현태, 「신라 ‘남궁(南宮)’의 성격 - ‘남궁지인(南宮之印)’명 기와의 출토지 분석을 중심으로 -」, 『역사와 현실』 제81집, 한국역사연구회, 2011.
- 이혜경, 「효문화의 생산과 『삼국유사』에서의 표현」,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18집,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1.
- 임동주, 「신라불교 윤리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임재해,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제11집 1호, 신라문화선양회, 1990.
- 장정태, 「『삼국유사』 「효선」편 연구」, 『한국의 청소년문화』 제19집, 한국청소년

효문화학회, 2012.

정천구, 『『삼국유사』와 『사석집』의 효에 대한 인식 비교』, 『영남학』 제14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8.

조미연, 『『삼국유사』 「효선」 편 연구』, 『한문학논집』 제17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207면.

조범환, 『『삼국유사』 ‘빈녀양모’조에 나타난 지은의 효성』, 『신라문화제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0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조수학, 「효의 변천과 참 뜻」, 『한국한문학과 불교문화』, 아세아문화사, 1981.

조현설, 「무불의 접화와 화해의 서사」, 『민족문화사연구』 제50집, 민족문화사학회, 2012.

최정선, 『『삼국유사』 효선에 나타난 불교와 이상적인 여성상』, 『불교학연구』 제10집, 불교학연구회, 2005.

최진형, 「구전설화에 나타난 ‘과격’: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3. 외국 저서

르네 지라르 지음, 김진식·박무호 옮김, 『폭력과 성스러움』(개정판), 민음사, 2000.

Henri Hubert and Marcel Mauss, *Sacrifice -Its Nature and Functions -*
(Translated by W.D.Hall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K.S. 케네스 첸, 장은화 역, 『중국인의 삶과 불교의 변용』, 씨아이알, 2012.

이 논문은 2014년 12월 10일 투고 완료되어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15년 1월 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A Study on the Buddhistic Acceptance of Sacrificial Filial Piety and its Meaning in *Sonsun-Maea*

Shin, Ho-ri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considering the Buddhistic acceptance of sacrificial filial piety motif and its meaning in *Sonsun-Maea*(孫順埋兒) which is included in *Samgunkyusa*(三國遺事).

Sonsun(孫順)'s behavior, burying his son for his old mother, is a specific motif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special offering to god. *Sonsun's* son becomes a scapegoat who can regain a peace of family-community from the crisis.

Though it is basically infanticide for his old mother—so it is the narrative of filial piety—, there is a ritual conception inner side of narrative which tries to make close relationship with god. Therefore, if we can say an aboriginality religion 'shamanism,' which was an universal religion before the Buddhism came to the peninsula, *Sonsun-Maea* is the story of filial piety which internalizes the sacrifice, shaman ritual form.

What is interesting is the duel surrogating progress in *Sonsun-Maea*. As Girard said, there is a duel surrogating progress in the ritual sacrifice. First is concentrating an indiscriminate violence of community on only one person, who is *Sonsun's* son in *Sonsun-Maea*. The second step of substitution is changing the first victim to another sacrificable victim to avoid the mutual revenge inside of community. In this second step, the object of substitution should be based on the similarity with the first victim.

However, in *Sonsun-Maea*, the stone bell is suddenly appeared instead of *Sonsun's* son. There is no similarity between *Sonsun's* son and the stone bell. In this point, we can suggest that *Sonsun-Maea* does not follow the exact duel progress of sacrifice in order to take this narrative into the Buddhist context. It seems true because the last part of *Sonsun-Maea*, the stone bell is enshrined in the temple *Honghyo-sa*(弘孝寺) which means Buddhism appropriates the shaman power of ritual form.

After all, sacrificial filial piety motif of *Sonsun-Maea* mediates the three dimensions which are composed of filial piety, shaman ritual form, and Buddhism. In fact, the decomposition of society in second half of *Silla* becomes more serious, and it is the social-historical background of *Sonsun-Maea*.

Therefore, we can insist that *Sonsun-Maea* is the Buddhistic text with a story of filial piety that internalizes the shaman ritual power, which has enough power to recover and make harmony of the social order of *Silla* community in that period.

Keywords : sacrifice, filial piety, Buddhistic acception, *Samgungnyusa*, infanticide, *Sonsun-Maea*